

영암군 공모사업 840억 확보 ‘두각’

정부·도 주관 사업 45건…전년比 국·도비 28억 ↑

중앙부처 사업 축소에도 체계적 전략 대응 결실

영암군이 코로나19 위기에도 800억원이 넘는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암군은 8일 “정부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올해 총 45건에 선정돼 총사업비 840억원(국·도비 5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확보한 국·도비 516억원보다 28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 수요를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별 공모사업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전략 대응 구축과 동분서주 발로 뛰는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실이다.

올해 공모 선정 분야는 일자리·도시개발·농촌·문화관광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두드러졌다.

주요 사업으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24억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252억원) ▲조선 해양 친환경 특허기술 공유플랫폼 구축(140억원) 등은 영암군의 경제 동력인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조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주민 삶의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호읍 주민들이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호읍 아우름 플랫폼 조성사업(76억원)과 확산면 지역주민들의 아이돌봄·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확산면 신활력氣충전소 누리 플랫폼사업(73억원) 등

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 사회·경제 공동체를 육성, 차별화된 농업 혁신 기반을 확보해 지역 농특산물의 제품 다각화·품질 관리와 생산·가공·유통·관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에 공모 선정된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사업(110억원)은 2019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트로트 가수를 양성하고 K-트로트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전남 지역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800억원이 넘는 공모사업비를 확보해 지역경제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불산단 전경. <영암군 제공>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 모든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민선 7기 현재까지 총

18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천70억원(국·도비 4천156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공모사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유치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영암=이봉영기자



이상의 함평군수·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군공직자들이 지난 7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군수와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함평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채소 등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수익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환급

전통시장·농산물가공지원센터·야영장 등 해당

함평군은 8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시설인 ‘수익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을 나중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시설(이하 ‘수익용 건축물’)은 군에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으로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최근 건축된 ▲함평전통시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대동제생태공원야영장 ▲함평해수욕장과 기존에 임대료가 발생하는 ▲군민회관 ▲공영버스터미널 등이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익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건물 임대료와 사용료 등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비와 유지보수비 등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

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은 다소 생소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달 2일 수익용 건축물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익용 건축물에 지급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나중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3년 반 정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기적으로 공제 대상 지출액을 파악해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기자

목포시, 인구 활력 도시 해법 찾기 모색

일자리 창출·인구증가 해법 3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목포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목포시는 8일 “최근 인구 시책 관련 12개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대책 협의회를 갖고 최근 인구 증가 요인 등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부서 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분야 별 대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반 회의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을 중점 논의하면서 전입, 결혼, 출생, 보육, 일자리 등 지원 사업을 적시 추진하는 한편,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사각지대 예방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중년 일자리통합센터 이용 확대 ▲24시간·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 ▲출산·연산제·월분제 지원 ▲전입 축하 기념 지원 확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실제 목포에 거주하면서 타 지

역에 주소가 있는 지역민과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23개 동 순회 캠페인 등을 통해 목포에(愛) 주소갖기 운동도 확대·전개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효석 부시장은 “목포 발전과 인구 유입의 근본 해법이 될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면서 체감도와 실효성이 높은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인구 증가의 근본 해법으로 삼고 시정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과 함께 친환경선박이 양대 축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추진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서남해안 일원에 단일 구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기업을 목

포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목포신항을 통해 발전단지로 이송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환경선박클러스터는 남향에서 추진 중이며 전기 선박과 친환경엔진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골자로 4만9천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 사업으로 대양산단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2천2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걸맞게 관광,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1천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인구 관련 시민 제안 활성화,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확대·구성 등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내년까지 등산로 등 211점 전수조사

무안군은 8일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시 대국민 위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지역, 해안가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도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다.

군은 하반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통해 2018년 영산강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오류, 망실,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2022년까지 등산로, 해안가 등에 설치된 지점번호판

211점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이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번호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자전거·캠핑 등 레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기적인 번호판 일제조사와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옥수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WOO
|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352-3010 (내선2번)
061)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광주·영광·영광지사 010-3611-5251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함 평 대 리 점 010-2602-6501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

CMYK

+